

내가 쓴 동은
내가 치운다.



구민준, 김대진, 김민수, 김민찬, 김용재, 김정욱, 김지호, 김한별,
김한수, 김호진, 박가온, 박석원, 박우찬, 박하늘, 박혜성, 신민서,
신재모, 심현욱, 윤성운, 이민석, 이하람, 전건형, 전준영, 추진권,
한규빈, 지음

結 者 解 之

구민준, 김대건, 김민수, 김민찬, 김용재, 김정옥, 김지호, 김한별,
김한수, 김호진, 박가온, 박석원, 박우찬, 박하늘, 박혜성, 신민서,
신재모, 심현옥, 윤성운, 이민석, 이하람, 전건형, 전준영, 추진권,
한규빈, 지음

CONTENT

1	구민준	6	14	박하늘	80
2	김대건	12	15	박혜성	86
3	김민수	16	16	신민서	92
4	김민찬	22	17	신재모	98
5	김용재	28	18	심현욱	106
6	김정욱	34	19	윤성운	110
7	김지호	40	20	이민석	118
8	김한별	46	21	이하람	124
9	김한수	50	22	전건형	128
10	김호진	56	23	전준영	132
11	박가온	62	24	추진권	140
12	박석원	68	25	한규빈	146
13	박우찬	74			

이 책은 2024년 재능중학교 2학년
2반 25명의 친구들이 함께 만든 책
입니다.

그림, 사진, 시, 미래의 나에게 쓰
는 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과
거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단
단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스스로 원고를 점검했
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이
또한 추억으로 남깁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우리 2반 친구
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2학년 2반 친구들아!

내가 늘 하는 말.

“사랑해”

2024년 10월 담임 강민정

1 구 민 준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프로 야구 선수)



30년 후의 나에게

안녕...? 나는 30년 전의 너야.

나는 지금 인천재능중 야구부로 활동 중이야. 나는 지금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프로에 지명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프로에서 경험을 얻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미래 일은 모르겠지만...

내가 미래에 프로가 안되어도 나는 열심히 할거야.

열심히 해서 30년 미래를 내가 볼거야.

미래에 프로가 아니어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미래가 바뀔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거야.

그래서 미래에 너도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어.

그럼 30년 뒤에 보자.

안녕!!!

별빛 속 희망

어둠 속 별빛이
조용히 속삭여,
잃은 꿈을 찾아
밤하늘에 피어나는
희망의 향기.
바람은 가볍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잊었던 기억이
살며시 피어오른다.
그리움의 노래가
새벽을 감싸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별빛 속에서 찾는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이꽃님)

1. 작품의 주요 내용: 주인공 은유는 우연히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넣게 되고 우체통에 넣은 편지는 34년 전 자신에게 도착한다. 처음에는 과거의 은유는 믿지 못했지만 미래의 은유가 미래의 일을 알려주면서 과거의 은유도 믿기 시작했다. 이 편지로 인해서 미래의 은유와 과거의 은유가 처음 만나게 되었다. 미래의 은유가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과거로 가는데 1년이 걸린다. 이 느린 우체통을 통해서 서로 우정을 쌓고 미래의 은유가 과거의 은유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기도 한다. 과거의 은유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미래의 은유에게 물어 봤는데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아픔을 알게 된다. 은유는 엄마를 찾아 나서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진다. 엄마의 죽음 아빠의 상처 그리고 가족의 사랑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들어 나면서 은유는 혼란스러워했다. 은유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2. 내가 선택한 인물: 내가 선택한 인물은 과거의 은유이다.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엄마가 죽음에 이른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의 은유야 니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아 엄마가 돌아가셔도 힘을 내고 잘 지내자 내가 응원할게.



우리 처음 만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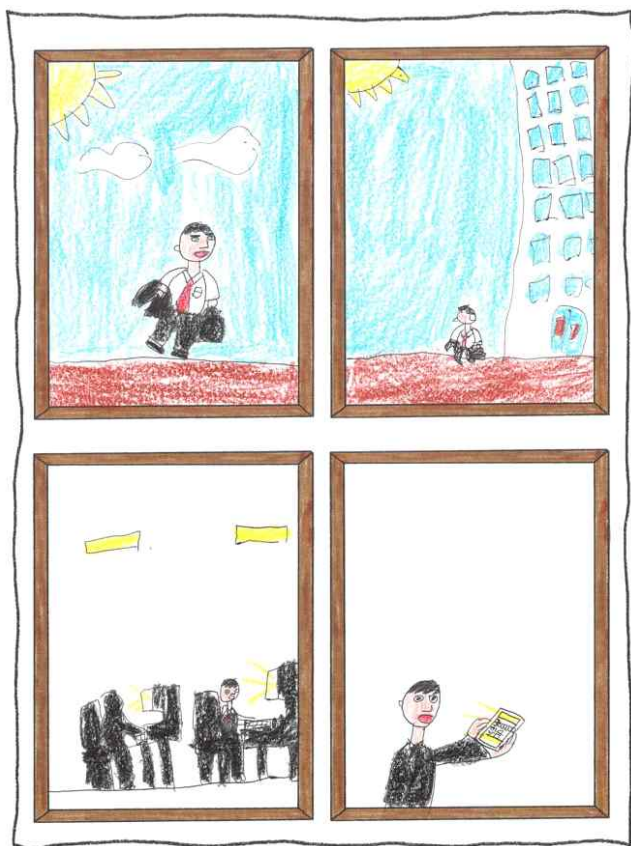
재활용 캔으로 화분 만들기

2 김 대 건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K리그 심판)



30년 후 나의 모습



쫄쫄한 가을

쫄인 길을 걸으면
발아래 밟히는 소리마다
가슴 한켠이 시린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처럼
나의 마음도 흩어져 버린 듯
텅 빈 가슴에 메아리치는 허공

인성 키우기

가족들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축구와 학교생활이었다. 어는 선수가 잘하고 어디 팀이 잘하는지, 어는 선수가 득점왕인지 어디 팀이 우승했는지. 그리고 학교생활은 어떤지, 급식은 맛있는지, 친구랑 사이는 어떤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게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밥상머리 교육 덕분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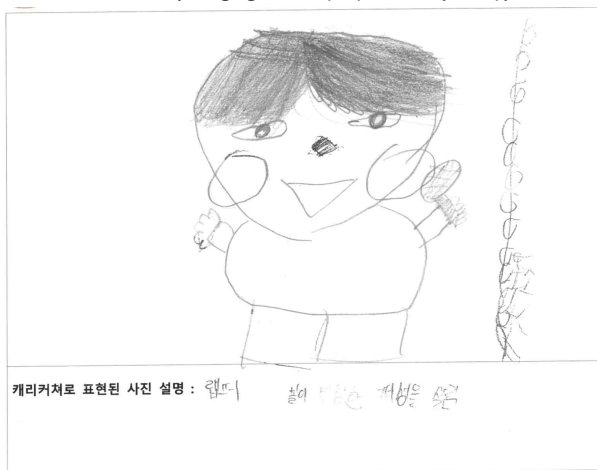
따까리, 전학생, 주주바, 로댕, 신가리. 57(신설)
이 책의 이야기는 따까리의 학교생활을 시작으로 진행된
다 책을 읽다 보면 피제이라는 애가 나온다. 피제이는
학교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담당한다 피제이의 말 한마디
면 따까리를 포함한 모든 애들이 움직인다. 그 정도로
학교에서 피제이의 위상은 대단했다 어느 날 학교에 전
학생이 왔다. 전학생은 학교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전학생과 피제이 사이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전
학생이 피제이 한테 반항을 한다.



2-2 담임 배 알까기 대회

3 김 민 수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랩퍼)



30년 후의 나에게

안녕! 30년 후의 민수야! 나는 어린 시절 너야!

학창 시절에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전 교회장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민수야!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아마 열심히 살아왔으니 그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을 거야.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많이 울었지만 항상 웃는 모습일거라고 생각할게. 잘 있어.

30년 후 멋진 나. 민수야.

애플(Apple)

애플은 항상 한 입 베어 먹혀있다.

그러나 항상 최고 자리에 있다.

우리도 살아가면 실수할 때도,

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장하고, 배워가며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지 된다.

포기는 최악의 선택이다.

인성 키우기

오랜만에 가족과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좋았다. 항상 학원이 늦게 끝나서 혼자 밥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함께한 식사라 더욱더 맛있는 느낌이었다.

저녁 메뉴는 아빠가 낚시를 해서 잡아온 쭈꾸미와 갑오징어 샤브샤브를 먹었다. 원래는 같이 가는거였는데 시험 기간이라 같이 가지 못해 아쉬웠다. 그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야구 얘기를 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두산베어스 팬인데 와일드카드에서 져서 준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해서 슬펐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다가 누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디 대학 갈거냐고 물어봐서 그거에 대해 얘기했다. 온 식구가 밥을 함께 먹으니 부모님께선 굉장히 기뻐하셨고 나 역시 어린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았다. 별거 아닌 일이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소중한 경험을 글로 쓰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첫사랑(이금이)

1.작품의 주요 내용: 이 작품의 주인공은 동재이다. 동재는 어릴적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바람에 재혼한 가정에서 은재라는 한 살 어린 동생과 함께 산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좋아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건 바로 동재가 좋아하는 연아와 친하다는 것이다. 동재는 연아를 처음 본 순간부터 연아를 좋아했다고 했다. 그러나 연아에게는 아역 탤런트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둘이 헤어진 후에 은재가 동재가 연아를 좋아하는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서로 함께하면서 동재는 은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에 둘은 헤어졌다. 그 이유는 동재가 문자에서의 모습과 실제 모습과 너무 달라서였다. 동재는 억울했지만, 주면 어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다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면서 잘 마무리 되었고, 원래 원수라고 생각했던 은재와 은재의 엄마에게도 마음을 피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

2. 내가 선택한 인물: 내가 선택한 인물은 은재이다.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은재는 아직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동생이다. 은재도 재혼하여 동재의 아빠를 잘 따라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항상 다 큰 아이처럼 품위있고 어른스러운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집 고양이 나비를 잃어버렸을 때는 오빠에게 의지하며 우는 것을 보니 아직 어린 면도 있다고 생각했다. 은재야 너는 아직 12살이지만, 살면서 제일 힘들고 슬픈 상황을 경험했어. 그런데도 기죽지 않고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점이 멋있다고 생각해. 너는 오빠를 위해서 친한 연아언니에게 오빠 전화 번호도 알려주고, 오빠가 재밌다고 만나보라고도 했어. 너는 정말 멋진 동생인 거 같아. 그렇지만 아직 너도 12살밖에 안 되었으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오빠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 너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초등학교 생활보단 조금 힘들거야. 그러니 잘난척 하지 말고 모르는 일이 있으면 오빠한테 물어봐. 너는

정말 착하고 멋져. 앞으로 있을 다양한 일들도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이겨내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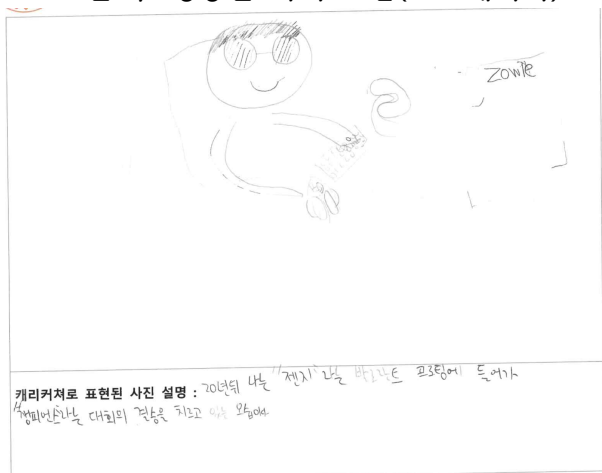
반장 선거



반장, 부반장 결정 후 파이팅 하는 우리

4 김 민 찬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프로게이머)



30년 후의 나에게

안녕! 미래(30년 후)의 김민찬.

30년 후에는 내가 뭘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아직 나는 꿈이 없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흥미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미있어 보이면 바로바로 해보면 내 진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될거야. 시간 날 때 책도 많이 보고 숙제도 미리미리 하자.

지금은 시험 기간 인대도 놀고 있으니 학년이 높아지면서는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어. 만약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 다음 시험에 더 잘 보면 되니까.

지금의 내 좌우명 “내 할 일만 하면서 앞으로 직진하자”를 그때(30년 후)까지 유지했으면 좋겠어.

내 몸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게.

-15살 김민찬이 30년 후 김민찬에게-

희망의 불빛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있으니,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불씨,
그 불빛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네.

고된 길을 걸으며 지친 마음도
새벽녘에 피어나는 빛을 보며
다시 숨을 쉬네
어제보다 더 밝은 오늘을 기대하며



정수기 만들기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독고숨에게 반하면(허진희)

1. 작품의 주요 내용: 탐정 서울무와 여왕 단태희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서울무는 전학을 온 독고숨에게 관심을 가져 친해지게 되고 독고숨이 마녀라는걸 알게된다, 독고숨은 마녀여서 저주나 주문을 걸 수 있다. 그리고 단태희는 옛날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왕자리를 독고숨에게 뺏기기가 싫어 독고숨을 지독하게 괴롭힌다, 어느날 모금활동으로 인해 돈을 모으고 있던 통이 독고숨의 사물함에 발견되었다, 얼마뒤 단태희가 시켜서 그 모금함을 독고숨에 사물함에 넣었다는 말로인해 단태희는 여왕자리에서 내려오게되고 본인이 독고숨에게 했던것처럼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된다. 나중에 이 일은 단태희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한 아이의 행동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독고숨에게 사과를 하게된다. 이 일로 인하여 독고숨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다.

2. 내가 선택한 인물: 단태희

3. 그 인물들에게 건네는 말: 독고숨을 괴롭히게 마녀여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독고숨이 너에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여왕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괴롭혔다는게 말이 안돼. 여왕의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았다면 너가 독고숨을 괴롭히면 안됐어. 세상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여왕이 어디있나 너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해야했어.

인 성 키 우 기

최근 들어 시험공부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과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며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니 답답함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박혀있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속이 후련해졌다. 부모님과의 대화 내용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읽고 쓰면서 외우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세심하게 더 둘러보기로 했다.

대화를 하며 저녁 식사를 하니깐 시간이 더 빨리 가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이었다.



카네이션 바구니 만들기

5 김 용 재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판사)



캐리커처로 표현된 사진 설명 : 판사가 되고 싶은 내가

30년 후의 나에게

용재야~ 네가 30년 후 뭘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많이 안벌어도 되. 어차피 너 돈 많이 쓰지도 않잖아. 만약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미가 없으면 그냥 퇴사하고 돈이 적더라도 너가 재미있었 하는걸 찾아. 돈 적다고 죽지는 않잖아? 뭐 이걸 희망사항이라고 그냥 니가 원하는대로 해. 어차피 나잖아. 어쨌든 행복하게 살아.

스타크래프트

한때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한때 모든 사람들을 밤을 세우게 했으나
여러 문제로 점점 몰락하다
끝끝내 찾는 사람 없네

인성 키우기

그날 저녁 매뉴는 엄마가 해준 매운탕이었다. 나는 평소에 매운탕에 넣는 물고기는 살을 발라 먹기에는 너무 부드러워 부서져서 고기를 좋아하는 나는 그닥 좋아하는 매뉴가 아니었다. 집안에 엄마 아빠 나 남동생은 있었지만 여동생은 태권도 학원을 가서 늦게 돌아왔다. 그 사이에 매운탕을 먹고 있던 우리는 칭찬하기 일수였다. 엄마와 아빠는 자연스럽게 소주를 곁고, 남동생과 나는 국물을 한 입 맛보고 허겁지겁 먹었다. 엄마와 아빠는 생선살을 발라서 우리 밥 위에 올려놨다. 엄마는 “야 나 잘 끓였지?”라고 아빠한테 말했고 아빠는

“이야 잘 끓였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거의다 먹을 때 즈음 여동생이 집에와서 밥을 먹었다. 우리 가족은 식사를 할 때는 맛있다. 라고만 말하고 얘기다운 얘기는 밥을 다 먹고 요플레나 과일 같은걸 먹을 때 말한다. 매운탕을 먹고 요플레를 먹으

며 얘기를 나눈다. 이야기에 주제는 어제 SSG와 Kt 가 5위 경쟁전을 했는데 SSG가 진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 내 여동생은 SSG팬인데 나는 딱히 응원하는 야구 클럽이 없어서 대충 Kt를 응원했었다.

여동생은 나를 보고

“오빠가 Kt응원해서 Kt가 이겼잖아”나는
“내가 응원안한다 해도 뭐가 달라지냐?”

라고 했다. 그러자 여동생은

“아니 그 멀대 같이 생긴 사람만 아니였어도”

나도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선수가 홈런을 2번이나 쳐서 Kt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에 우리 가족은 조금 웃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방에 들어가서 할 일을 했다. 평소에 가족이랑 밥을 거의 항상 같이 먹어서 언제를 써야 할 지가 고민이었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오늘의 민수(김혜정)

1. 작품의 주요 내용: 이 작품은 유명한 영화 감독 김민수랑 평범한 학생 최민수한테 일어나는 일로 민수가 불법적으로 김감독에 영화를 다운로드해 고소를 받았다. 민수는 딱마침 학교에 방문한 김감독에게 부탁해 방학 동안 심부름을 하면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민수는 김감독 작업실에 방학동안 오게 된다. 민수는 거기서 김감독이랑 친해져 서로 친구처럼 대하게 되었다. 김감독은 여진이라는 카페 사장님을 좋아하는데 민수에 도움으로 데이트까지하는 사이가 되었다. 민수는 만화를 그리는걸 좋아했는데 김감독에 조언으로 웹툰을 연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엄마가 이를 반대하여 엄마와 갈등을 겪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연재하는 웹툰 밍밍과마요가 유명해져서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 데보라랑 여러 10대 유명인과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는다. 거기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박기자 한테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김감독에 영화를 유출했다. 그러나 박기자는 약속을 깨고 기사를 써서 김감독과 민수에 사이는 조금 멀어졌고 김감독이 일본에 가야할 시간이라 서로 화해를 못했다. 시간이 지나 민수는 김감독에 영화를 보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내친구 민수에게"라는 마지막 편지

를 보고 김감독에 작업실로 돌아가 다시 만나게 된다.

2. 내가 선택한 인물: 최민수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실수로 박기자 한테 김감독
에 영화 내용을 유출해서 김감독이 화가 났다. 다시 친
하게 지낼 수 있을거야 너무 걱정하지마



대한서림 갔다가 떡볶이 먹은 날(늘봄 분식)

6 김 정 욱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경찰)



30년 후의 나에게

안녕! 미래의 나.

지금 쓰는 정욱은 15살 김정욱이겠지?

너는 미래에 성고했을거라 믿어. 너는 미래에 살 빠고 운동 코치거나 운동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근대 성공할 것 같아. 그리고 넌 뉴진스 하니같은 여친을 만나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있을 거고...

지금 15살 나는 공부를 잘하진 않고 과학, 역사, 한문을 30점대를 받았지만 걱정하지마. 미래의 김정욱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살빠고 잘생겨질거야. 그리고 운동선수를 해. 난 운동선수가 너무 되고 싶어. 미래엔 운동선수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게 나의 목표야. 그리고 엄마, 아빠, 누나한테 꼭 효도해. 지금은 잘 못해줬지만 미래에는 행복하게 해줘. 그리고 뉴진스 하니랑 결혼해. 너무 내스타일이야. 미래에 김정욱은 중3때 살이 빠져 잘생겨지고 운동선수나 코치를 하고 멀리 알리고 예쁜 여친을 만나 결혼하고 내가족 전부에게 효도하고 행복하게만 살아. 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꼭 성공해라. 미래의 김정욱!

인성 키우기

최근에 나의 생일이지만 아버지랑 누나가 바빠서 어머니랑만 함께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랑만 밥을 함께 먹어도 정말 행복하고 좋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중2가 되면서 스케줄이 조금 바빠져서 항상 9시에 밥을 먹는다. 하지만 최근에 공휴일이 2일이나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어서 정말 좋았다. 부모님이랑 대화는 별로 안 했지만 함께 그냥 밥을 먹었다는게 좋았다. 누나는 대학생이여서 나랑 함께 밥을 먹은적이 없다. 왜냐하면 항상 토,일에 집에 잠깐 오는데 나는 토,일 학원에 가서 일찍 나가기 때문이다. 아버지와는 같이 밥을 먹고싶지만 나랑 시간이 안 맞아서 아버지가 집에 오셔도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는 밥을 먹으셨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나의 생일이라고 전화로 축하해주셨는데 아버지가 공휴일 때문에 너무 바빠져서 집은 못 온다고 하셨다. 아버지가 아버지 있는 쪽에 와서 같이 밥

을 먹자고 하셨지만 학원 스케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간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같이 함께 밥을 먹든 무엇을 하
든 같이 할 기회는 많아서 괜찮다 부모님
과 함께 무엇을 하든 정말 좋다.



2학년 2반 V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불편한 편의점1(김호연)

1. 작품의 주요 내용:서울역에서 우연히 편의점 독고라는 노숙자가 염 여사의 지갑을 주워서 편의점에서 만나서 돌려줬는데 염 여사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지갑을 주워준 남자에게 마음껏 고르라며 여기는 자기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이야기를 하고 독고에게 야간 편의점 알바를 시켜준다. 독고는 두명까지 상대가 가능하다며 계속 얘기하고 독고는 알바를 하기도중 염 여사 사장님의 아들인 민식이 와서 자기는 편의점 아들이라며 독고에게 지금 당장 독고를 자를수도 있다며 얘기하고 독고는 사장님이 아프다며 아들 하나 있다고 엄마가 아파도 거들떠 안 본다고 그 말을 들은 민식은 편의점 나가서 엄마에게 달려가 몸 걱정을 하고 독고를 자르면 안되냐는 말을 하지만 사장님은 안된다고 얘기했다 독고는 사실 성형외과 의사였지만 대리수술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고 가정폭력에 알코올 중독까지 되서 노숙자가 되고 독고라는 선배적 노숙자가 어느 날 겨울 생을 마치고 주인공은 그를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독고

라고 한 것이다.

2. 내가 선택한 인물:독고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노숙자가 됨. 인생을 아직 포기하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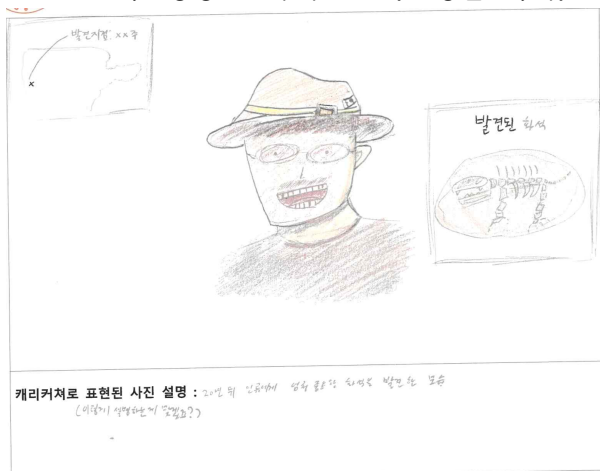


담임 선생님 생신날 음악 시간에

축하 노래 불렀더니 아이스크림 사주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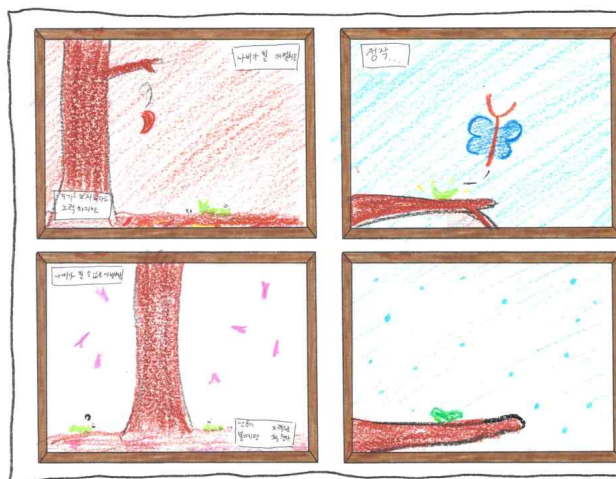
7 김 지 호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고생물 학자)



30년 후의 나에게

그때는 결혼은 했겠지? 아니다 연애는 해봤냐? 너가 해보고 싶었던 거랑 먹고 싶던 거, 보고 싶던 거 전부 해봤어? 그때쯤에는 돈도 꽤 많이 모았을 거 같고.. 원준이랑은 아직도 친하냐? 뭐 친하겠지 솔직히 할 말은 많이는 없고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있어라. 너무 힘들게 살 필요는 없어. 발로는 열심히 하자.



인성 키우기

엄마가 을왕리에 간다고 했다. 학원에서 나와 바로 차를 타고 을왕리에 갔다. 집을 풀고 놀다. 밥을 먹으러 갔다.

을왕리에 갔을 때마다 먹었던 조개구이지만 오늘은 동생의 친구도 같이 왔기 때문에 조금은 새로운 기분이 들었다.

먼저 반찬으로 나온 도토리묵과 산낙지를 먹었다. 동생과 동생의 친구는 서로 얘기하느라 바빴고 나는 아빠와 중간고사 성적에 대한 얘기를 했다. 중간고사 평균이 80점 넘으면 컴퓨터를 사주신다는 얘기를 하셔서 1년동안 다니지 않던 학원도 다니고 있고 평소에는 공부를 하지 않지만 조금씩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 나에게 대견하다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얘기를 하던 중 방어회가 나왔다. 방어회를 와사비가 섞은 초장에 찍으며 천천히 먹었다. 한쪽에서는 치즈 가리비를 굽고 있었고 나는 방어회와 치즈 가리비 구이를 먹고 있었다. 새우와 메인인 조개구이를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숙소로 돌아와 자고 다음날 아침밥은 어제 사왔던 라면과 밥을 먹고난 후에 바다에서 놀다가 씻고난 후에 11시 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을왕리에서는 먹기만 한 것 같지만 동생과 동생의 친구는 즐겁게 놀았던 것 같았고 나도 오랜만에 간 을왕리에서 배부르게 먹고 놀았던거 같다.

청 소

속 속 빗자루 소리
먼지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들의 추억도
속 속 점점 사라지네



교실 대청소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서울(손흥규)

1. 작품의 주요 내용

폐허가 된 서울 안에서 소년과 그 소년의 동생이 폐허가 된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쪽으로 가면서 여러 인물들과 만나면서 생긴 이야기.

2. 내가 선택한 인물

주인공(소년)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네가 폐허가 된 서울에서 살아 남으면서 동생을 지키면서 참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네가 동생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동생이 잘 살아남고 클 수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안전할 수 있었어. 너도 동생만 챙기지 말고 너도 너 몸도 챙겨.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너도 너를 잘 관리하면서 하나뿐인 가족을 지켜.



훑놀이, 협동 놀이

8 김 한 별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해병대 군인)



캐리커처로 표현된 사진 설명 : 해병대 수색대

30년 후의 나에게

안녕! 나는 30년 전의 김한별이야.

30년 뒤에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해병대 수색대에서 직업군인으로 군대에서 근무를 하다 돈을 많이 모아 조금 좋은 자동차를 사고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귀여고 귀한 자식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있겠지. 무슨 일이든 꾸준히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해내면 결국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거야. 미래의 나에게 편지가 전해지면 꼭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줘. 넌 꼭 행복하게 살거야. 그럼 건강하게 아이들, 가족과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살아. 이 편지가 전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파이팅!

-김 한 별-

2024.7.20. 금요일

인성 키우기

지난주 수요일에 전라남도 친할아버지댁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하고 화목했던 분위기로 저녁 식사를 했다.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정성껏 차려 주신 푸짐한 삼겹살과 밥, 막창 등을 친할아버지댁 마당에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고 할아버지와 셋째 형은 서로 군대 이야기 하며 가족이 웃음 꽃을 피웠다. 특히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듣고 너무 멋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았다. 그렇게 재미있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들과 맛있는 밥을 다먹고 낮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바다, 갯벌에서 직접 잡아오신 새우와 뽕뚜리를 맛있게 먹고 마지막으로 과일을 먹으면서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좋은 추억을 쌓고 온 것 같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네임 스티커(황보나)

1. 작품의 주요 내용

주인공 고은서는 아빠와 루비 루비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중2이다 어느날 친구에게 비밀을 하나 듣는다. 이름을 써넣은 네임 스티커를 화분에 붙이고 뭔가를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들었다 은서는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친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은서는 할머니, 외삼촌 명두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며 친구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게되고 친구에게 두명의 이름을 써서 네임 스티커를 준다

민구의 네임 스티커는 좋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네임 스티커 고은서는 그 사실을 알지만 두명의 이름을 써 네임 스티커를 친구에게 주고 이후에 심리적인 혼란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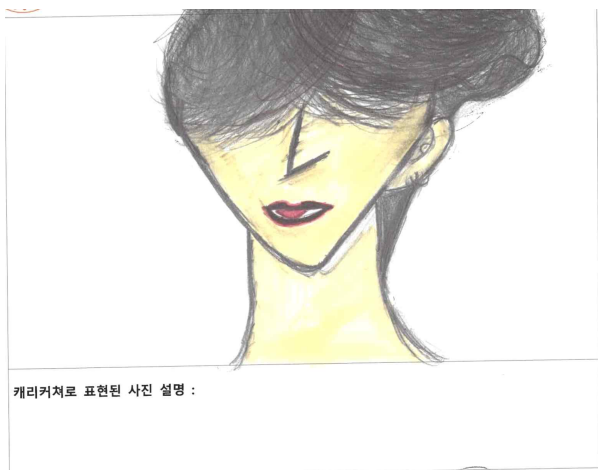
2. 내가 선택한 인물 : 주인공 고은서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은서야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변에는 은서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9 김 한 수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성공한 배우)



그대들...

어느날, 소나기처럼 엄마, 아빠의 포근한 손
에 안긴 내 어린 나...

그대들의 보물은.. 나.. 였다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 귀엽고 깜찍한
나를...

엄청 예뻐래 준 어머니, 아버지, 그대들은
나를 매일매일 소중한 시간을 내어 나를 아
껴주며

돌봐준 그대들이여... 이젠 내가 부모인 그대
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이 효자가 꼭 큰 선물을 드
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아침 풍경(볼 꺼놓고 게임하기)

인성 키우기

엄마께서 해주시던 집밥. 집밥을 내가 한번 만들어 엄마께 차려 드렸다. 처음엔 달걀 후라이를 만들어 보았다 후라이는 내가 평소에 하는 거라 좀 간단했지만, 계란말이 같은 경우는 계란을 풀고 계란 물을 기름두른 프라이팬의 온도가 올라오면 그 때 부어서 익히고 돌돌 마는게 좀 어려워서 시도를 해보았지만 꽤 어려웠다. 하지만 2번째 시도만에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꽤 괜찮게 이쁘게 모양이 나왔다. 후라이와 계란말이를 만든 후.. 스펀지를 했다. 스펀지는 무척 쉬웠다 스펀지도 하고 국물을 만들어 볼려고 하는데.. 뭘 만들지 고민하다가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았다. 김치찌개의 재료는 다진마늘,김치,두부,물500ml,각종 야채(콩나물),고기(가능하면) 재료는 다 있으니 만들어 보았다 처음에 냄비에 기름을 2~2바퀴 두르고 마늘과,김치를 볶는다. 다 볶고 고기를 넣는데 고기는 가능하면 넣고 한 후에 물

500ml를 넣고 끓인 뒤 콩나물,두부 등 야채를 넣고 3분간 푹 끓인다. 푹 끓이고 뚜껑을 열면 김치찌개의 냄새가 엄청 풍기며 집안의 공기가 김치찌개 냄새로 변한다 zz. 그리고 김치찌개 만들다가 남은 두부로 반은 그냥 간장에 찍어 먹을 수 있게 접시에 플레이팅하고 또 반의 반은 기름에 튀긴다. 그 다음 플레이팅을 해서 식탁에 뒀다. 그러고 엄마를 불러서 내가 차린 집밥을 엄마께 만들어 보았다. 엄마께서 김치찌개를 한입 드시더니 맛있다고 하셨다. 다음 달걀 후라이와 계란말이를 드시고 기뻐하셨다. 엄마께서 고맙다고 “우리 아들 다 컸네“라고 말 하시며 감동 받으셨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극해(임성순)

등장인물 상황 : 고립된 극해에서 일어난 사건과 수수
끼끼의 살인 사건.

(이야기):일본인들이 조선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조선인
들,선원들과 바다를 건너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어느날 남방개발 대표단의 배들이 선단을 이뤄 유키마
루 주변에 떠 있었다.

이들은 필리핀으로 가게 되는데..필리핀 가기 전 날 밤부
터 바람이 세게불고 파도가 높아졌다.

그러다가 선원들이 하나 둘 씩 멀미,구토를 하며 괴로워
했다 이때 갑판장은 "이 새끼, 고등 보통에서 멀미 안
하는 법을 안 가르쳐준 모양이지"라고 말 했다.

그 다음 날 필리핀 바다로 도착하게 되는데 대만 해
협에 접어들기 시작하자 미군의 잠수함 공격이 시작되였
다.

밤마다 빈틈없이 등화관제를 했지만, 잠수함은 늘 귀신
처럼 선단을 찾아내 늑대처럼 주위를 맴돌았다.잠망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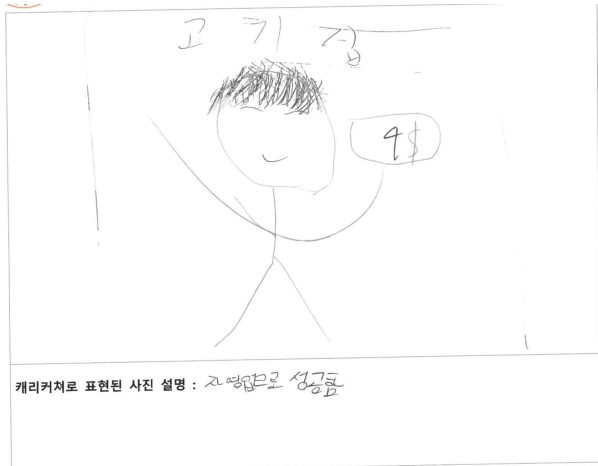
만들어내는 항적들을 찾기위해 선원들은 돌아가며 미스트 위에 있는 망루에서 견시를 했다. 그러고나서 몇 달 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어류 잡으라고 일 시킨다. 조선사람들은 할수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어류들을 낚아내다가 갑자기 엄청 큰 고래가 낚였다.



학생문화회관 공연 관람(2024.5.9.)

10 김 호 진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성공한 자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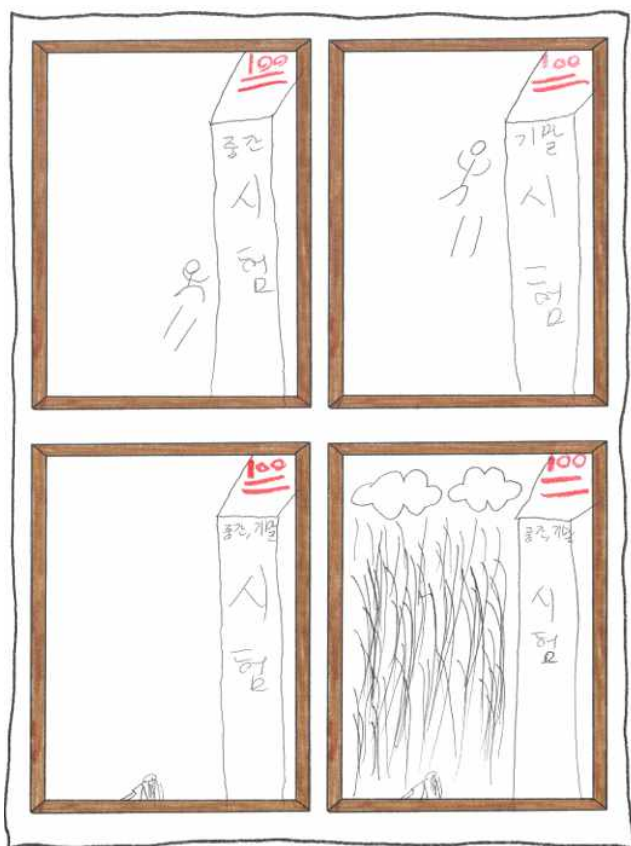


시 험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시험이라는 큰 벽을 만났다.
나는 중간 때 벽을 못 넘었다.
나는 기말 때 벽을 못 넘었다.
결국 나는 시험에게 패했다.
그리고 고요한 비가 왔다.
그리고 내 눈물이 가려졌다.
다음엔 저 큰 벽을 넘을 것이다.



기억나니? 한문 시험공부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조선 축구를 지켜라!(조경숙)

1. 작품의 주요 내용: 주인공인 테두는 부모님과 함께 용정역을 같이 가는데 부모님이 잠시 기다리라 하고 가고 주인공인 테두는 홀로 용정역에 남게 된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구두도 닦고 무거운 짐도 들고 평양에 가는 기차표를 얻었다. 평양역에서 내리고 이제 뭘 할지 몰라서 구석에 있었다. 점점 더 추워졌다 그런데 아까 기차 안에서 봤던 아주머니가 같이 아주머니 가게로 데려 가줬다. 그리고 아주머니 권유로 학교를 가게 되고 축구부에도 입성하게 되고 전국대회에서 심판 매수 한 팀도 이기고 우승은 못했지만 그리고 뉴스에 실리고 그리고 부모님에 위치를 알게 되어서 찾아 갔는데 부모님이 평양역에 가서 다시 평양역으로 돌아가고 책은 끝난다.

2. 내가 선택한 인물: 테두(주인공)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한마디: 테두야 안녕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된거 너무 축하해 처음에는 축구부에서 다른 아이들한테 인정 받진 못했지만 너의 멋진 실력을 보고 모두가 널 인정 하게 될것 같아 그리고 전국대회에

서 심판을 매수 한 팀을 이긴 것 다시 한번 축하해
 어떻게 모든 운동 종목에서 최강인 심판을 이겼니?! 나
 는 깜짝 놀랐어 부모님을 만나도 아주머니는 헤어지는
 거 슬프겠다. 못 만나도 슬퍼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평
 양역 가자 그리고 이제 너가 좋아하는 축구 원하는 만
 큼 하면 좋겠다. 언젠가는 너가 우승하는 날이 오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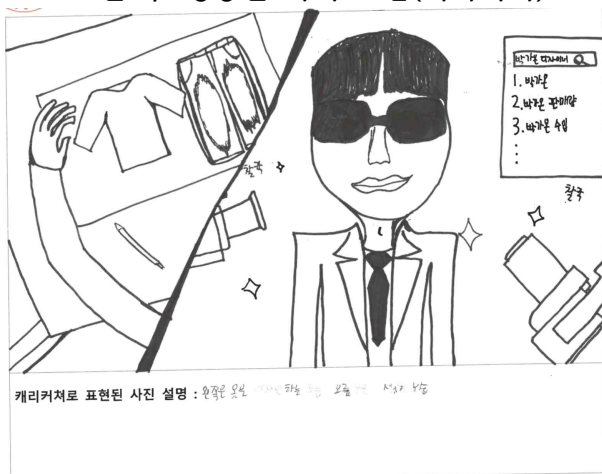
우리의 미래가 담긴 텀블러(2024.5.14.)



시험 공부

11 박 가 온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디자이너)



30년 후의 나에게

안녕! 30년 뒤의 나, 박가온아!

너가 이 글을 읽고 있을 때는 어쩌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생기고 직장을 가지며 열심히 살아갈 거라고 믿을게. 너가 결혼을 누구랑 했을지 모르겠지만 꼭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랑 했으면 좋겠어.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참지마. 참아야 하는 순간이 더 많겠지만 어쩔때는 아니니깐. 난 너가 사고 없이 다치치 않고 컷으면 좋겠고 직장을 멀로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네.

지금은 사업가, 운동선수를 꿈꾸고 있지.

미래에 너는 그걸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 첫 번째 소원이다.

이 셋중에 하나만 이루어도 좋겠네. 30년 뒤라니깐 생소하고 지금과는 다르게 지치고 주름도 생기고 못생겨지겠지만 아들, 딸 이쁘고 잘생기게 낳으면 되니깐 걱정 말고 잘 성장해서 30년 뒤 이 편지를 읽고 맞는지 확인도 하고 싶다. 잘 커서 30년 뒤에 만나자.

2024.7.20. 박가온, 나에게

색 연 필

하루하루 나를 돌아보니
많은 감정이 북받치고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많은 색이 생겨오고
앞으로 살아가면
많은 색들이 줄어들고
지금 많이 더 많은
색들을 찾아가자

인성 키우기

어버이날이 와서 부모님에게 튤립이랑
편지를 써서 가져다 드렸다.
그랬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몇년
만에 꽃을 사다드린거 같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기분 좋아하시고
감동 받으신걸 보니 저도 마음이 너무 좋
고 행복했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통행금지(박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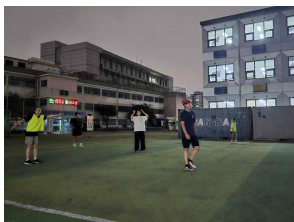
1. 작품의 주요 내용 : 처음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배경으로 했으며 광민이가 아버지 생일에 시내로 짜장면을 먹으러 갈 때 민주화 운동이라는 벽보를 보았고 농사를 하던 광민이는 그런 말들이 생소했고 그 후에 찌돌이라는 강아지가 광민이랑 등교하다 뱀에 물려 죽을뻔 하고 그 후 딸기 농사를 계속 하는데 시내에 나갔던 어머니가 시내 상황을 알려주었다. 시내에는 헬기가 있고 도로에는 군인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을 몽둥이로 패거나 칼로 찌르며 방송도 하며 젊은이 늙은이를 안 가린다고 하시고 시내에는 통행금지가 생겼다. 광민이 가족은 풍족하지 않았기에 시내에 딸기를 팔지 못 해 걱정이었다. 아버지는 딸기를 팔려고 시내에 나갔지만 아까 시내로 들어갈 때는 못 본 군차량과 군인들이 길을 막았다. 아버지는 밖에서 잠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헌혈을 하고 있었다 다친 사람이 많아 피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길을 막는

군인들 때문에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가 안 돌아 오자
집에서는 걱정하고 있었다.

2. 내가 선택한 인물 : 아버지



떡볶이 먹고 야구 보고(SSG VS LG)(2024.5.30.)



우리 반 여름 캠프

12 박 석 원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의사)



캐릭터화로 표현된 사진 설명 : 눈물 속에 그려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30년 후의 나에게

30년 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고, 담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하는 일에 집중해서 잘 하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오래된 꽃

꽃은 어릴 땐 아무것도 아니다
꽃은 꽃을 피울 때는 예쁘다
꽃은 늙기 때문에 점점 예쁨이 사라진다
하지만
꽃이 남기는 씨앗은
다시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늙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어떨까?

인성 키우기

일단 그날 가족과 함께 먹었던 쭈꾸미가 정말 맛있었다. 그날 쭈꾸미 낚시를 갔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는 쭈꾸미 낚시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누가 더 많이 잡았는지, 배멀미가 심하지 않았는지 등등의 얘기가 오고 갔다. 그리고 밥을 먹고 있을 때 나의 고민은 진로를 못정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나에게 진로는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라 너가 알아서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해주었다. 나는 그말에 동의 했지만, 나는 내가 진로에 대해 생각을 많이 안해보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때의 느낌은 쭈꾸미 낚시를 다녀와서 재미는 있었지만 많이 피곤하였다. 하지만 재미있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였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김중미)

1. 작품의 주요 내용: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살고 있는 연우,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복둥이와 진국이(둘 다 개 이름),그리고 고양이 또롱이가 한 집에 있었다. 그 때 연우와 연우의 아버지가 시장을 걸어 다니다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길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한다. 연우의 아버지는 그 길 고양이를 동물 병원에 데려갔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다. 연우의 아버지는 그 길 고양이에게 "모리" 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모리와 또롱이가 친해졌을 때 또롱이가 정원에 나가 있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개에게 물어 결국 죽고 말았다. 같은 시간 시장을 철거하려고 해서 많은 길 고양이들이 죽어나갔다. 그때 어떤 연락했던 고양이가 시장 밖에 있는 천막에 들어왔다. 은주는 그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 고양이와 친해졌다. 그리고 은주의 아버지가 하시는 중국집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재개발 해야 해서 그 중국집을 부셔야 한다고

했는데, 은주의 아버지는 그것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은주의 아버지는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재개발 해야 해서 은주는 이사를 가게 되었다. 하지만 은주는 자신이 없으면 그 길 고양이가 걱정되어서 동물 병원을 들렀다가 그 길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다. 그리고 한참 뒤 은주의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정신 병원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심하게 정신 병이 걸려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은주의 아버지는 폭력적으로 변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은주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 바로 데려온 길 고양이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다가 결국 몸싸움 까지 했는데 거기서 그 길 고양이가 어머니를 지키려고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그 뒤 그 길 고양이는 동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연우의 아버지가 그 고양이도 버려진 것 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길 고양이를 데려가서 "크레마" 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크레마는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잘 살았다. 크레마가 온 뒤 진국

이도 죽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연우는 죽은 동물들을 그리워 하며 끝을 내게 된다.

2. 내가 선택한 인물: 연우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열심히 키우고, 또 사랑을 주며 키운 동물들이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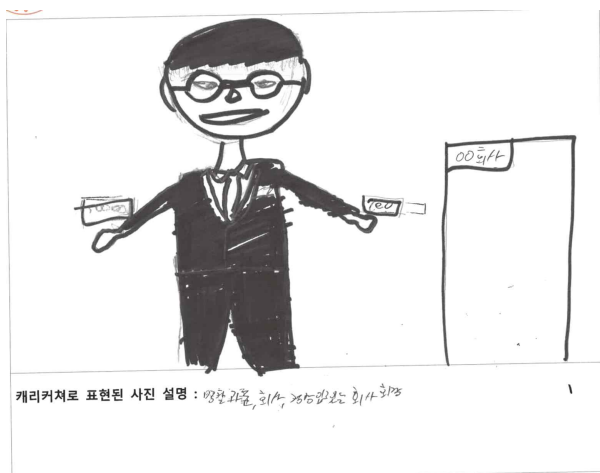
진국이와 또롱이가 많이 그리워 보여, 하지만 연우 너가 지금 포기한다면 남아 있는 동물들은 너를 그리워 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포기는 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선행·효행 문예 공모전 수상자들

13 박 우 찬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CEO)



10년 후의 나에게

성인이 되는 10년 후에 나에게

안녕 나는 2024년에 15살 박우찬이야.

내가 아마 이 편지를 25살의 박우찬이 볼 거야. 그때
면 나는 군대도 다녀오고 엄마와 아빠의 멋진 아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

25살에는 잘살지, 힘들게 살지는 모르지만 지금 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

대학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할거라고
믿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을 것 같네. 게임 너무 하지
말고 공부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겠지?

내 성격에 위험하거나 이상한 일은 안 하고 있을 거
라고 생각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차량 정비사 같
은 직업을 하고 있겠지.

아니면 대학을 가서 평범한 직장에서 일을 할수도 있
고

25살 정도 되면 여친도 생겼겠지....이? 직장을 다닐
준비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 같네. 15살인
박우찬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25살의 박우찬도 잘 살
아 갈거라고 생각해. 그럼 안녕!

여름 캠프

재미있는 중학교
재미있는 여름 캠프
재미있는 2학년 2반
신이 나서 친구들과 떠들고
재미있어서 친구들과 웃고
영상 보고 감동받아서 울고
여러 일들 있었지만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여름 캠프



우린 반 여름 캠프

인성 키우기

자주 가족들과 저녁을 먹지만 최근에 동생이 수학 여행에 다녀 와서 가족과 3일 만에 다 같이 저녁을 먹었다. 엄마와 동생은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오고 나는 학원에 가고, 아빠는 회사에서 돌아 오신 뒤 다같이 밥을 먹었다. 시장에서 사온 튀김과 엄마가 만드신 김치찌개와 묵무침을 먹으며 가족들과 이번주 주말에 시골에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나는 지금 시험 기간이라 학원에 가야해서 주말에 나 혼자 버스를 타고 시골에 가기로 했고 아빠가 자전거를 차로 실고가서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 밥을 먹고 치운뒤 동생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서 사온 초콜릿을 먹고 동생이 수학여행에 가서 장기자랑에 나가서 한 춤을 춘 영상을 보여주었다. 동생이 제주도에서 사온 초콜릿은 맛있었다. 제주도에서 사온 초콜릿은 돌하르방 초콜릿이랑 쇼콜라 초콜릿이었다. 근데 쇼콜라 초콜릿이 개별 포장되어 있고 가루가 별로 안묻어 있어서 그냥 초콜릿 같았지만 맛있었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알바 염탐러(문부일)

1. 작품의 주요 내용: 가족의 가게가 망해서 잘나가는 가게에 아르바이트로 몰래 들어가서 가게가 잘되는 이유를 알아내는 도윤; 오래된 집을 팔고 더 나은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루오의 가족, 개인 과외를 받는 아이가 과외 선생님에게 공모전에 나가서 상을 받고 열심히 공모전 준비를 해서 나갔지만 상을 받지 못하는 택오, 엄마가 재혼해서 새아버지와 사는 것을 불편해 해서 아파트 옆빌라를 사서 독립하는 도하, 불법촬영으로 피해를 보는 민주. 이 책은 학력 위주 사회, 불법 이민자, 불법 촬영, 성적 조작, 부동산 투기 등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담고 있다.

2. 내가 선택한 캐릭터 : 도하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도하는 부모님이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데, 새아버지와 맞는 것이 없

어서 독립을 결심하고 고등학생 때 어머니께 집 비번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살던 아파트 옆 빌라로 이사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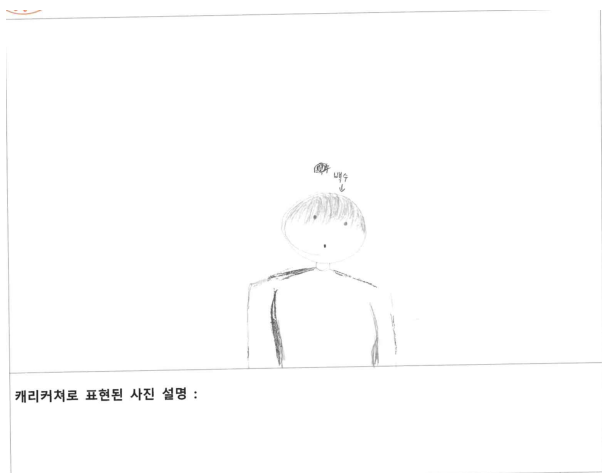
도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집을 떠나 독립하기로 결정한 것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런 상황이었어도 그랬을 것이다.



우리 반 여름 캠프

14 박 하 늘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



30년 후의 나에게

30년 후의 나야~

네가 성공을 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좋겠고, 모든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내가 결혼 했을 때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애들이 최대한 많이 하고 싶은 게 있어 하면 해주고 내 여자친구도 상처 받지 않게 잘 챙겨주고 가족을 구성하고 돈을 벌고 담배도 하지 않고 가족을 잘 챙기더라도 나 자신도 가끔씩 챙겨주자. 30년 후의 나야! 행복하게 잘 살고 아프지 않게 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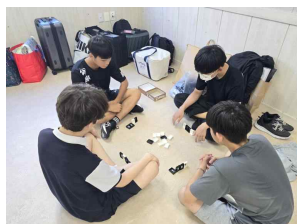


우린 반 여름 캠프

인성 키우기

3년 전에 가족들이랑 집에서 먹기엔 출출해서 떡볶이 뷔페를 갔다. 떡볶이 뷔페에 가서 나랑 동생들은 뭐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했다. 그러고 뭐를 먹을지 정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나중에 크면 뭐하고, 나중에 같이 어디 갈지, 등등의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다 익었었다. 익어서 다 같이 맛있게 먹고 다 먹고 나니 배불러서 계산을 하고 나와 산책을

돌아다녔다. 돌아다니다 보니 너무 추워서 붕어빵 파는 곳을 가서 기다리다가 다 팔렸다는 말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보일러를 켜고 이불 속에서 쉬고 있었다.



우린 반 여름 캠프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알바 엠타러(문부일)

1. 작품의 주요 내용 : 이 작품은 미래에 어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알바를 시작하지만 그것에 대한 희망 잃고 어른이 되는 것이 싫어진 청년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아버지는 이사를 가기로 결심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에 청년은 대학생이 되어 과를 들어가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인공이 알던 누나는 성폭행을 당할 뻔하여 가게 알바를 관두고 알바를 피해 학교 근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을 끊었다.

또, 공모전 결과를 보니 주인공의 친구인 호준이가 우수상을 받고 주인공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호준이네 엄마가 수상 기념으로 토요일에 뷔페로 초대한다!"라는 문자를 삭제 할려고 하다가 주인공은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또 주인공은 누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어디에 있고, 그곳에선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2. 내가 선택한 인물:소브드 누나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아무리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도망치는 것은 겁쟁이이며 비겁하다. 그냥 맞서서 싸우지 왜 도망가냐. 증거물을 찾고 내가 피해자인 증거를 내고 오히려 가해자는 내가 아닌 상대다라고 밝히는게 맞는데 도망을 가야하는 이유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도망을 갔는지 이해가 안되고 정 도망을 가더라도 증거를 대면 되는데 굳이 그냥 도망만 가서 증거도 없이 사라지고 주인공을 걱정 시켜서 일을 크게 키울 수도 있는데 도망을 가는 선택은 너무 어이없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겁났는지. 다시 일어나서 겁먹지 말고 맞서 싸우는걸 추천

넓은 하늘

내 마음이 넓어야
상대의 마음도 넓다.

또는 내가 친절하게 하여야
상대도 친절하게 대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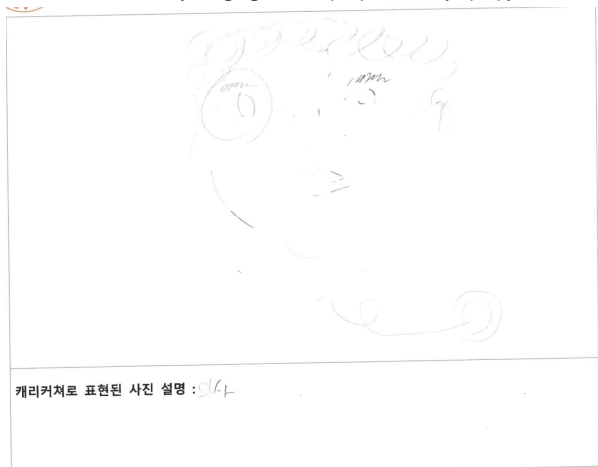
나와 상대가 서로서로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개학 날 급식실

15 박 혜 성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의사)



30년 후의 나에게

미래의 나야~ 잘 지내고 있니?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나와 다르게 항상 감사하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미래의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열심히 살렴.

모성애

부모님이 한없이 베푸시는 모성애,
그 어느 것보다 넓고 따뜻하니

도대체 무엇이 모성애보다 위대할까?

부모님이 주시는 모성애,
마음속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니
부족함 없고 욕심 없는 인생이어라.

인성 키우기

우연찮게 아버지의 생일과 밥상머리교육이 겹쳤다. 맛있는 생일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과 소감을 이야기하고 가족끼리 질문하니 사이가 가까워졌다.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이야기하니 밥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오늘 일하면서 본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들어보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이 나의 생각보다 더 고되다는 것을 느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나 희생하였다니 정말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다 보니 시간이 확실히 빨리 갔다. 원래라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아버지의 생신인지라 2배로 뜻깊고 즐거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에는 밥을 먹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귀한 줄 몰랐는데 밥상머리교육으로 가족

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나의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순간에 가족의 소중함,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반성하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관점을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매일매일의 밥상이 이렇게 알차고 뜻깊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금덩이를 준다 하여도 바꾸지 않을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애관극장 영화 관람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하타사와 세이고)

1. 작품의 주요 내용 : 일본의 세이코여중 2학년 3반 미치코가 같은 그룹의 아이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하지만 가해자의 부모들이 결정적인 증거인 미치코의 유서를 찢어버리고 먹는 등 이 사건을 감추려고 하는 내용이다.

2. 내가 선택한 인물 : 2학년 3반의 담임인 "노다"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 미치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미치코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엄연한 가해자들의 잘못이니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추석 맞이 떡 만들기

16 신 민 서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프로야구 선수)



30년 후의 나에게

안녕? 나는 30년 전인 2024년에 사는 신민서야. 나는 3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지가 궁금해. 프로야구에 한 획을 그은 선수가 되었거나, 아님 어느 팀에서 무명 지도자로 살아갈지... 나는 정말 궁금해.

나는 30년후에 프로야구에 한 획을 그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 그럼 언젠간 좋은 일이 있을거야.

2054년에 있는 45살 신민서! 화이팅 해라.



2024년 추석 슈퍼문

소중한 순간들

길가에 핀 작은 꽃,
바람에 속삭여,
햇살 아래 고개 숙이고,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네.

무심한 발걸음 속,
때로는 잊혀지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은 피어나,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네.

비 오는 날에도,
그대의 색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희망의 향기를 전하리.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아몬드(손원평)

1. 작품의 주요 내용: 주인공인 선윤재는 감정을 못 느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엄마, 할머니에게 감정을 배운다. 하지만 자기 생일 밥을 먹으러 시내에 갔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한 남자에게 엄마, 할머니가 칼에 찔렸다. 할머니는 죽고 엄마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었다. 엄마가 쓰러져 돈이 부족해져 윤재는 엄마가 운영하던 헌책방을 엄마 친구인 심 박사의 도움을 받아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곤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곤이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아였다. 곤이는 윤재를 괴롭혔지만 아무 감정을 못 느끼는 윤재를 보고 더욱더 심하게 괴롭혔다. 윤재와 곤이는 시간이 지나고 사이가 좋아지고 윤재도 같은 학교에 이도라라는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윤재는 철사에 찔린뽀 한 곤이를 도와주기 위해 자기가 찔린다. 그래서 윤재는 식물인간이 됐다. 하지만 윤재는 깨어났고 똑같이 식물인

간인 엄마도 깨어나며 윤재는 서서히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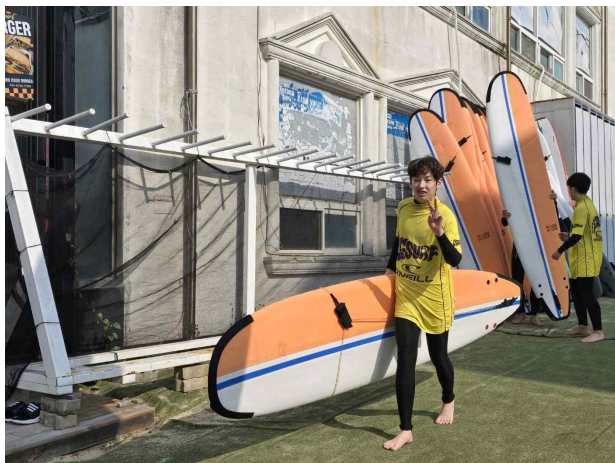
2. 내가 선택한 인물 : 선윤재

그 인물이 처한 상황 : 엄마, 할머니가 칼에 찔렸을 때

3. 그 인물에게 전하는 위로 말 : 괜찮아? 네 탓이 아니니까 후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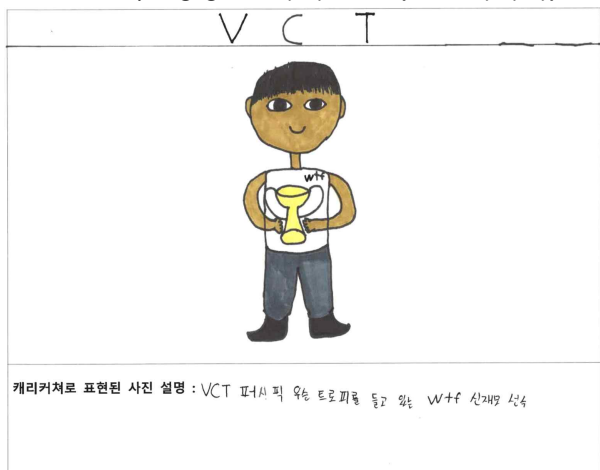
수련회(만리포) 214호



수련회(서핑)

17 신 재 모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프로게이머)



30년 후의 나에게

안녕, 30년 전의 너는 지금의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30년 전의 너는 진로를 찾지 못하여 고등학교, 대학교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그 후 어떻게 진로를 어찌저찌 찾고 그에 관한 학교에 입학해서 너의 꿈을 이뤘을 거라고 믿어. 너는 항상 실패해도 그 일을 끝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꿈을 찾지 못했다면 무엇이든 도전하여 그 기회를 잡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으면 좋겠다. 항상 후회되지 않을 삶을 살길 바랄게.



밥상머리 교육 실천 수기 공모전 수상자들

재능중학교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각자 다른 재능으로 모든 분야에서 강한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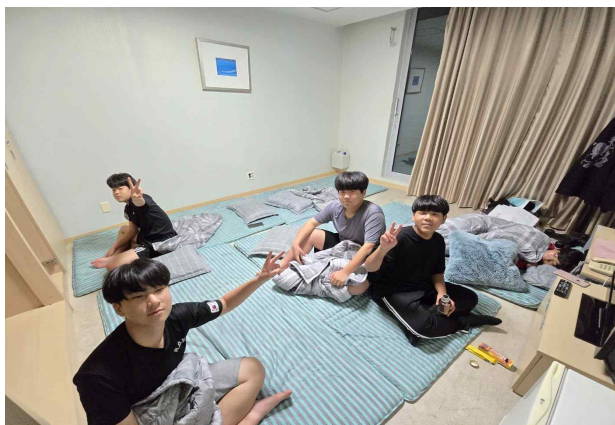
하지만 이렇게 다른 개성,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할 때는 몇십명이 한 명이 된 것처럼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에서

제3자의 마음을 항상 부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재능중학교



수련회(만리포) 213호

인성 키우기

나는 항상 아침을 먹지만 엄마는 아침을 먹지 않아서 같이 먹지 못한다. 점심은 학교에 가서 급식으로 먹고 주말엔 점심을 먹지 않는다. 저녁엔 나는 항상 학원이 끝나고 늦은 시간 집에 오기 때문에 엄마는 이미 밥을 먹고 난 후에 내가 밥을 먹어서 엄마와 같이 밥 먹을 시간이 많지 않다. 아니면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엔 주말에 학원을 가기 전에 씻고 나왔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너무 기뻐다. 원래는 학원 가기전에 밥을 먹지 않거나, 밥을 방에서 혼자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와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 날 된장찌개와 고등어조림을 먹었는데, 나는 된장찌개를 좋아하지 않지만,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잘 끓여줘서 된장찌개도 잘 먹었고, 고등어 조림은 내가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나는 원래 밥을 먹을때 핸드폰으

로 유튜브를 보면서 먹는데, 오늘은 유튜브를 보지 않고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었다. 옆에 있는 TV에선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에 대한 얘기도 하며, 엄마와 함께 즐겁게 밥을 먹었다. 내가 엄마와 함께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엄마도 마음이 편안해 보인 것 같았다. 이번의 일을 토대로 삼아서 밥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좀 자주 거실에 나와서 핸드폰, 컴퓨터를 잠시 내려놓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요즘 내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학원은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 이런 나의 속을 말할 사람을 멀리서 찾지 말고 나의 가족과 함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같이 밥 먹는 시간을 혼자 보내지 말고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 해야겠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느낀 점이 많다. 느낀 점 중 하나는 혼자 밥 먹을때는 몰랐던 나의 부모님은 자식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지 알고 나의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함께 밥을 먹어야겠다. 아쉬운 점은 모든 가족 아빠, 엄마, 누나, 내가 다 함께 식사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고, 4명이서 밥을 먹으면 누나랑 내가 분위기를 올려주면, 엄마랑 아빠가 그에 맞게 호응을 해주어서 우리 가족의 식사시간은 재밌는데, 누나는 학업으로 바빠서 밥을 같이 먹을 시간이 없고, 아빠는 이런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려고 일하시다가 주말에만 들어오시다 보니 4명의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밥을 다같이 못 먹는 경우가 많다. 이제부터 4명이 모일 시간이 많이 없지만 주말에는 모일 수 있으니 이번 주 주말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이종산)

1. 작품의 주요 내용: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 멤버 소라, 모모, 세연이 학교 도서관에 있다가 여름방학때 세연이 종이학 귀신을 만난다. 같은 학교 선배이고, 괴담을 좋아하는 고등학생 한장휘 선배와 함께 학교의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이야기이다.

2. 내가 선택한 인물: 모모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어떠한 괴담이던 호기심에 이끌려 무서워 하지 않고, 적극적이다. 그렇지만 막상 어린 아이 귀신을 보니 무서워 도망 친다.

나도 너의 행동에 공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무슨 일이던 괴담, 사고, 미스테리 등등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호기심 때문에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거든. 만약 실행에 옮겼는데 막상 그 사건이 나에게 다가 온다면, 나도 너처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도망 갈 것 같아.



수련회(서핑)

18 심 현 욱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격투기 선수)



캐리커처로 표현된 사진 설명 : 격투기 선수의 모습

30년 후의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미래의 심현욱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겠지.

너는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엄청나게 잘생긴 아들을 낳았겠지.

그리고 너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어서 효도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너는 정말 유명해질거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자.

세계 최고가 되어서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살자.

노력해!!!

밤

어두운 밤
별은 반짝이고
달도 반짝이는 밤
나도 반짝인다.

인성 키우기

나는 어버이날에 나는 학교에서 봉사 시간에 만든 카네이션과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쓰게 하신 편지를 드렸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실 때는 귀찮고 짜증 났지만 다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

카네이션은 만들고 나니까 생각보다 잘 만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부모님에게 드려니 엄마가 꽃이 이쁘다며 좋아하셨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 보니 만드는 건 싫었지만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 어버이날에는 돈을 모아서 선물도 사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몇 년 전에 나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도 어버이날 선물을 사드려야겠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푸른 사자 와니니 2 : 검은 땅의 주인(이현)

1.작품의 주요 내용: 1편에서 마디바 무리에게 쫓겨난 후 잠보, 말라이카와 같이 살아가던 와니니가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 사자 마이샤와 함께 바위 너구리에게 속아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주인 없는 검은 땅을 가게 된다. 하지만 마이샤의 엄마를 계속해서 찾지 못하게 된다. 엄마를 찾는 것을 포기한 마이샤가 와니니와 함께 다니면서 무투에게 복수하는 와니니와 다른 사자들을 도와주고 무투의 아들 바라바라와 함께 와니니 무리가 되는 내용

2.내가 선택한 인물: 와니니

3.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와니니지만 다른 동료들은 챙겨야 되는 상황

자신도 힘들지만 동료들을 챙기는 와니니가 멋있었다.

19 윤 성 윤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CEO)



친 구

어떨 때는 같이 웃고
어떨 때는 같이 우는
그것은 친구
외로우면 만나서 놀고
슬플 때는 위로해 주는
나의 친구
어떨 때는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그러면서 더욱 끈끈해지는 우정
평생 간직 해야하는 좋은 추억
나를 항상 기다려주는
그것은 친구

30년 후의 나에게

안녕! 미래의 나야. 나는 15살의 너야.

나는 지금 공부도 잘 못하고 꿈도 없어서 미래의 내가 뭘하고 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

15년 뒤에는 알게 되겠지?

미래의 나야. 제발 집에서 놀고 먹지 말고(집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도 있고 돈도 여유가 있으면 더 좋고.

그냥 내 바람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15살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2024.7.19. 금요일

인성 키우기

이때는 5월 8일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서 어버이날의 맞춰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했다.

예전에는 다 색종이를 접어서 카네이션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꽃을 사다 드리려고 꽃집에서 카네이션을 사고 집에와서 편지를 썼는데 대충 지금까지 고마웠던 것들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 등등 여러 가지를 쓰고 편지 안에 용돈을 넣어서 카네이션에 끼워놨다. 그리고 어버이날 학교에서 봉사 시간에 카네이션을 더 얻어버려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할아버지가 생각나 할아버지께 가져다드리니 기뻐하셔서 나도 기쁘고 뿌듯했다. 집에 가서 일이 끝나고 오시는 부모님을 기다렸다. 2시간뒤 부모님이 일이 끝나고 오셔서 어제 만들어놔던 카네이션과 편지를 드리니 엄청 기뻐하셔서 기분이 좋고 뿌듯했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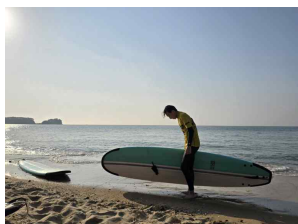
꿀의 맛(조남주)

1. 작품의 주요 내용:이 책은 영화 중학교 영화 동아리에서 만난 다운,소란,해인,은지의 이야기다 처음 시작은 중학교가 끝나고 고등학교 입학울 앞두고 이 4명은 여행을가고 거기서 4명 다 같은 고등학교를 가기로 한다. 그렇게 이 4명은 인기가 없어 4명 다 입학할 수 있는 신영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한다. 이 뒤는 이 4명에 과거사를 풀어준다. 다운은 아픈 동생이 하나 있다. 다운이 어릴때 불쑥 외롭다라고 말하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다운의 부모님은 뒤늦게 둘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태어난 동생은 몸이 좋지 않아 엄마가 매일 병간호를 해야했고 다운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다운은더 외로워 졌다. 소란은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사를 갈때마다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부터 친구로 지냈던 지아라는 친구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지아도 이사를 가버렸다. 하지만 지아와 소란은 그럼에도 주말에 만나서 놀았다.

하지만 어느날 지아와 소란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고 잠시 화장실을 가겠다고 지아가 오지 않자 소란은 화장실에 가서 뭐하냐고 물어보았다 지아는 대답했다. 나는 요즘 바쁘고 너무 졸려 소란아 이 말 이후 소란과 지아는 주말에 더이상 만나지 않았고 그랬 통화와 메세지까지 하지 않게되며 연락 끊겼다. 해인은 아빠가 하는 사업 덕분에 부유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아빠와 공동 대표가 될 예정이었던 사업가가 아빠의 투자금을 들고 사라져 가족에 안정과 행복이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인은 가족과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모에 추천으로 가람 여고를 갈 생각으로 큰 이모랑 사는집으로 주소를 변경했지만 가람여고 자체 조사에서 위장전입사실이 걸려 가람여고를 가지 못하게 되었다. 마지막 은지는 6학년이 되면서 신영진으로 이사 왔다. 이사오기전 은지는 학교폭력에 피해자였다.가해자였던 하은은 벌을 받고 은지에게 사과 편지를 남기고 이사를 가버린다 은지는 용기를 내서 해은에게 물어보았다.

2. 내가 선택한 인물:다운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동생이 아프더라도 걱정 하지마 나중에 다 괜찮을꺼야



수련회(서핑)



수련회

20 이 민 석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요리사)



캐리커처로 표현된 사진 설명 :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요리사를 그렸습니다. 손에 들고있는 도는 요리사들이 많이 쓰는 국자와 뒤집개입니다.

30년 후의 나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다.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많은 곳들을 갈 것이다. 일을 하고 힘들고 지칠 때 가족의 얼굴을 보면 힘든 표정이 행복한 표정으로 바뀔 것이다.

어릴 적에 소원이 세계여행 이었는데 30년 후에 가족들과 함께 세계여행을 할 것이다. 30년 후에 나는 누구보다 더 재밋고 행복한 날을 이어갈 것이다.



핸드크림 만들기

인성 키우기

우리 가족은 오늘 저녁으로 어머니가 해주신 김밥을 먹으면서 함께 밥상머리 앞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유기견 보호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위해서 가족들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강아지를 기르는 우리집은 유기견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으며, 유기견들을 데려다가 기르는 집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유기견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물칩을 이용해서 유기견이 생겨도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족들과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저녁때 퇴근하고 오시면 어머니가 바로 식사를 차려주셔서 저희는 가족들과 매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밥상머리에서 하루 일과도 이야기 하고 다음날 일정도 의논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누고 대화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가족들은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저도 가족들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며 식

사시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의견도 배우
고 따르고 있습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시행하던 밥상머리교육
을 실천하면서 더욱 더 두터운 가족 분위
기를 형성시켰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가짜 인간(박영란)

1. 세상에는 헬라라는 로봇과 인간이 있다. 헬라는 때가 되면 공장으로 가서 몸이 무너지고 기억을 잃는다. 헬라에서 미아는 사람들이 몰랐던 오류로 인해 전생을 기억하게 되고, 전생에서 알던 지인들을 만나려고 노력한다. 또 다른 헬라 하영은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외할머니댁으로 가서 산다고 해서 자신은 고작 헬라라는 슬픔, 화가 있는 상태고 미아는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기 때문에 미아와 함께 모험을 떠난다. 그래서 미아와 미아의 친구 하영이와 함께 옥상으로 이도를 만나고, 숲 속으로는 누나와 배우 닥터 안을 만나러 갔다. 지붕 위의 이도, 숲 속의 누나, 배우 안 박사는 각자의 선택을 했다. 이것은 미아와 하영이 진짜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2. 내가 선택한 캐릭터는 미아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하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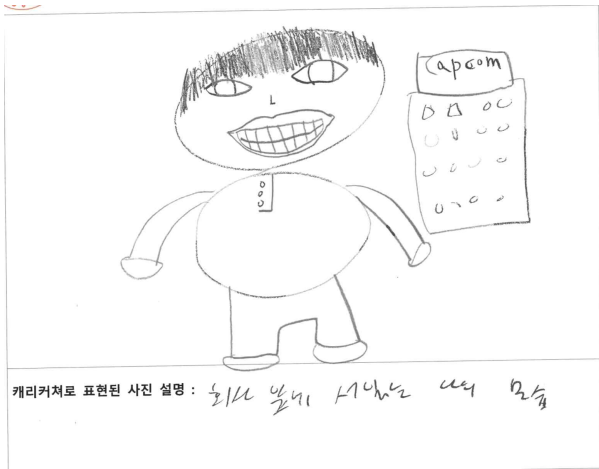
3. 하명아, 너는 헬라이고 네 엄마는 너를 헬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충격과 슬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야. 하지만 이 세상에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또는
헬라가 분명 있어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응원할게.
화이팅!!



수련회

21 이 하 란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CAPCOM 디렉터)



인성 키우기

평소에 감사함을 느끼던 부모님과 친구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태어나게 해주시고 키워주신 감사함을 담아 편지를 썼고 친구에게는 평소에 받았던 배려 친절에 관한 고마움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에게는 평소에 잘 가르쳐 주시고 항상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 감사함을 썼습니다.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하며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걸 다시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310호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구덩이(루이스 섀커)

줄거리는 유명한 야구선수에게 신발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스탠리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초록호수 캠프로 끌려가 구덩이를 파는 정신수양을 받는 이야기만 보게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탠리에 고조 할아버지인 엘리야 엘내츠에 이야기를 말해준다. 자신이 좋아하는 마라는 여자에게 청혼해 결혼하기 위해 바르코프라는 남자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어겨 저주를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 스탠리와 그의 친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특히 스탠리는 처음에는 고립되어 있고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가진 지식과 기술, 그리고 친구들과의 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과,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대한 배려와 도움에 대한 가치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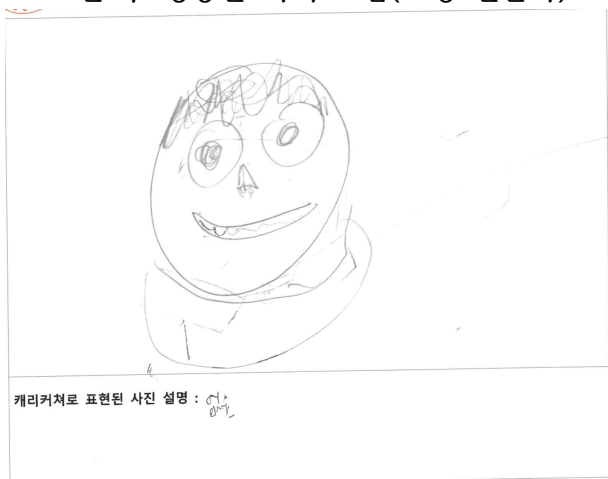
이 책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며,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읽어도 재미와 좋은 깨달음을 얻을수 있을 것 같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김재학 강사님)

22 전 건 형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코딩 전문가)



우리 2-2반

우리 반 2-2반에 들어오니
신나게 떠드는 소리와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반 학생들의
연필 소리까지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 당침이라는 소리에
노트북 타자소리에
오늘도 평소의 2-2반이어서 행복하다



수련회 312호

인성 키우기

어머니와 매콤 우동 밀키트 로 저녁을 해결했는데요. 김치의 칼칼한 국물 때문에 어머니가 이건 ‘겨울에 먹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셨고 저도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뉴스를 틀었는데 정치 관련된 뉴스가 나오자 정치 관련된 그런 말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이XX의 정부가 나쁘고 윤XX가 정부가 그나마 괜찮은 거라며 이XX의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매우 자세히 알려주셨고 또 윤XX의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밥을 다먹어 주방에 제 밥그릇과 우동그릇을 놓고 잘먹었습니다를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러갔습니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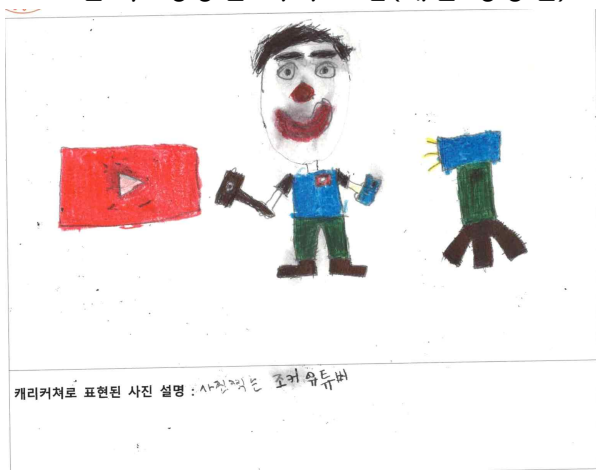
비스킷(김선미)

대해 재미를 느낄수있는 책은 이책이 처음이 었다 스토리는 귀가심각하게 예민해지는 병이 있는 고등학생이 비스킷 이라는 자신감도 없고 존재감도없어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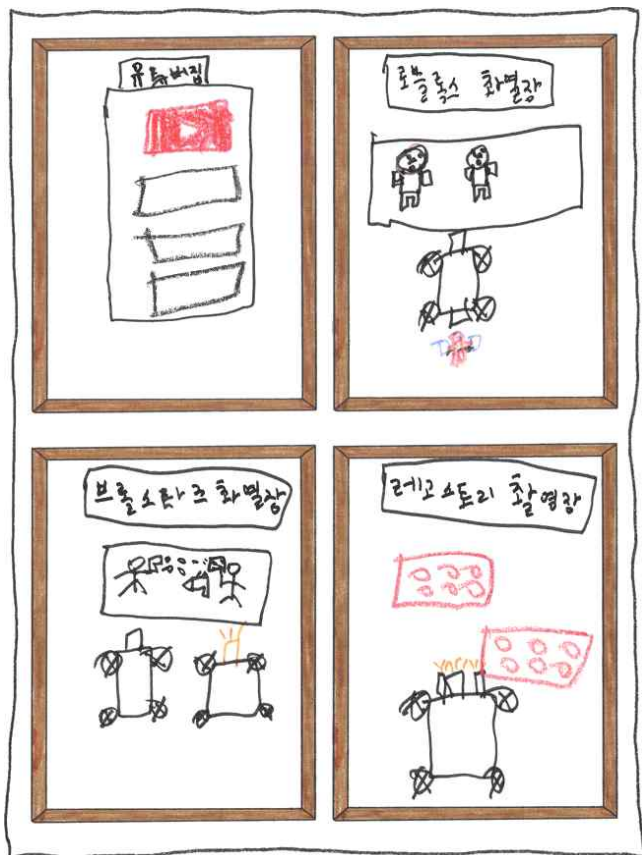
비스킷에서 벗어나게해주는 스토리다 그리고 비스킷은 단계 가있는데 1,2,3이 있다 1은 보이긴하는데 흐릿하게 보이고 2는 완전흐릿하고 3단계는 비스킷 마냥 비스킷 조각처럼 몸이 붕괴가되어 3단계인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거의 안보이는 형태이다 주인공이름이 안나와.....

23 전 준 영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개인 방송인)



30년 후의 나의 모습



탁! 탁탁!

친구들하고 만나서 배드민턴 하기로 했네.
배드민턴 라켓으로 공을 쳤더니 바람 타고
휘리릭 날아가 나무에 박혔네. 라켓으로
‘탁’ 쳐봐도 공이 떨어지지 않네. 포기하고
집에서 친구들하고 팽이를 돌렸는데 팽이
부딪히는 소리가 ‘탁탁’하고 울릴 때마다 이
겼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바다로 간 별들(박일환)

1. 작품의 주요 내용 : 친구에 대한 우정

2. 내가 선택한 인물 : 강민석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 민석아 먹서기라고 놀임 받
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고 대회 팀명을 오죽하면으로
했니 대회 나갈려고 연습했는데 대회에 나갔니? 세월호
참사에서 일 때문에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광화문
에서는 세월호에 대한 시위를 했는데 시위에 참가했니?

인성 키우기

우리 가족은 주말이면 삼시세끼 거의 대부분 식사를 같이한다. 주말이면 아빠는 이것저것 요리를 많이 해주시고 고기를 구워 먹는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직접 마트에서 고기와 야채를 사오신다.

난 아침 일찍 미용실을 갔다가 TV에서 별거벗은 세계사를 보았다. 세계사 내용은 환경을 파괴하는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이였다. 한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세계 3위라고 한다. 플라스틱은 원래 나무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이제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특히 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대 5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게 쪼개지게 되는데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과 육지 생물의 몸에 축적되어 우리가 동식물을 섭취

함으로써 인간의 몸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쌓인다고 한다.

우리집에서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보았다.

우리집은 주로 엄마가 쓰레기 줄이기를 하고 계셨다.

엄마는 물티슈 안쓰기를 한달 해본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달동안 행주와 걸레를 빼는게 힘들어서 포기했다고 하셨다. 엄마는 최대한 물티슈를 안쓰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다.

플라스틱 반찬통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유리 반찬통으로 대부분 사용한다.

음식을 배달할때도 일회용 수저를 주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회용 비닐과 지퍼팩을 크기대로 사지 않고 한가지 사이즈만 사용해서 각각 한 개씩만 가지고 있다. 음식이 남으면 비닐에 넣지 않고 반찬통에 넣어서 보관한다.

아빠와 나는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는

다. 그것도 음식을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겠다.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환경을 위해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쓰레기 줄이기를 하기로 했다.



수련회 311호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바다로 간 별들(박일환)

1.작품의 주요 내용:친구에 대한 우정

2.내가 선택한 인물:강민석

3.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민석아 믹서기라고 놀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대회 팀명을 오죽하면으로 했니 대회 나갈려고 연습했는데 대회에 나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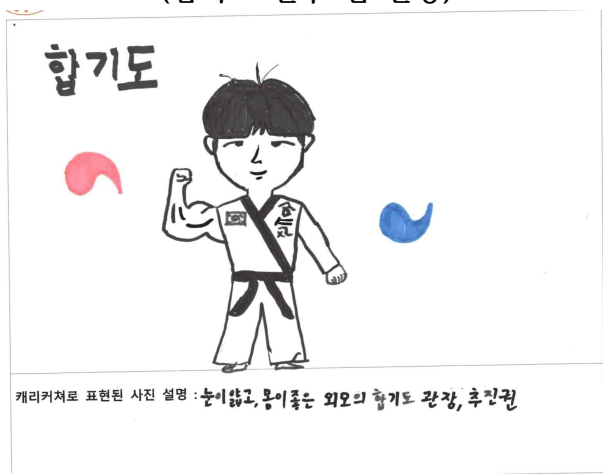
세철호 참세에서 일 때문에 학교에서 무슨 일을하고
광화문에서는 세월에 대한 시위를 했는 시위에 참가했
니?



수련회

24 추 진 권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
(합기도 선수 겸 관장)



30년 후의 나에게

안녕 나는 30년 전의 너야. 나는 만 14세, 중학교 2학년이야.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걸 못 정해서 고민이야. 너는 뭘 하며 살고 있니? 나는 너가 합기도 관장님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 또 궁금한게 아직도 이서준, 정민찬, 강나운, 진민우, 조연우, 박혜성, 신유건, 한규빈이랑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 개네는 뭐 하고 지내는지도 궁금하네. 이제는 너에게 격려의 말을 해줄게. 너가 이걸 보고 있을 때는 고등학교를 가고, 수능을 치르고, 대학교도 가고, 군대도 다녀왔겠지?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잘 살고 있는 너가 참 대단하고 자랑스러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 하고 있다면 틈틈히 준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길 바래. 인생은 단 한번 뿐이니까. 예전처럼 시간이 허무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항상 행복하게 보내야해. 알겠지? 그럼 안녕!

고마운 이들에게

내가 힘들 때 다독여주는 그이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어 준 그이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믿어주는 그이
내가 모르는 지극한 정성 어디서 오나
내가 받는 지극한 정성
내가 받는 든든한 신뢰
도대체 어디서 온건가
아하 여기 있었네
바로 내 옆에 있네
항상 나를 믿어주는 그들
항상 내 옆을 지켜준 그들



풋살 리그

협동

나는 친구들과 2주 전에 계획했던 하루 일정이 있었다. 내 친구 민찬이는 인천남중과 경기를 잡고, 버스 노선을 알아봤다. 그렇게 계획대로 1시 반에 버스 정류장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경기장에 도착해서 2시 반에 경기를 시작하고, 4시에 경기가 끝난 후에 버스를 타고 롯데백화점에 가서 가방도 사고 라멘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친구들과 협동하여 재밌고,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수련회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소년은 자란다(이지현)

1. 작품의 주요 내용: 주인공인 14살 영우가 엄마와 함께 아버지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로 도망치고, 서울에서의 새 집에서 박 영감을 만나게된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택견계의 전설 박범수 할아버지였고, 불량배 삼총사한테 맞고다니는 영우에게 할아버지는 택견을 가르쳐주신다. 김명순 할머니의 도움으로 지역 아동 센터 친구들도 택견을 같이 배우게 되며 영우에게 친구들이 생긴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영우가 친구들과 택견 체조 공연을 했던 것이 SNS에 올라가고, 그걸 영우의 아버지가 보고 집을 찾아온다. 그때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무광 아저씨네 집으로 도망칠 수 있었고, 그렇게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영우의 아버지가 외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이 나와서 엄마는 아버지를 찾아가 고소를해서 아버지는 경찰한테구속되었다. 영우는 서울로 돌아가서 할아버지와 친구들을 만나보고, 이뻐동안 못했던 공부를 해

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

2. 내가 선택한 인물: 영우

3. 그 인물에게 건네는 말: 영우가 아버지를 다시 만난 상황에서 내가 건네줄 말은 이땔동안 택전을 수련해왔으니 무서울게 없을 거야. 이제 너는 아버지한테 맞고 살던 예전에 너가 아니잖아. 너의 성장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일을 잘 끝마치고, 친구들,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길 바란다.

25 한 규 빈

20년 후 성공한 나의 모습(합기도 관장)



캐리커처로 표현된 사진 설명 : 합기도 2과 큰 귀, 안경

30년 후의 나에게

이 편지를 쓴지 30년이 지나서 이걸 읽고 있을 나!

즉, 너에게 너가 거기서 무엇을 하든, 잘 살고 있든 못살고 있든 그냥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 이걸 읽는다는 건 30년 동안 잘 버텼다는 거니까. 이걸 읽고 있는 너는 이미 가정의 있을 수도 혹은 아이도 있을 수 있겠지.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잘 살아왔으니 거기서의 너도 너의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보자.

사랑해. 힘내.

그리고 바터줘서 고마워. 나도 지금을 후회 없도록 살아가볼테니 너도 미래를 후회 없이 살아주길 바래. 그리고 내가 가장 바라는 건 이 편지가 30년 후의 너에게 무사히 전달되는 거야.

꼭 30년이 지나서가 아니어도 이 편지를 보고 힘내서 살아가면 좋겠다.

30년 전의 너가

이 별

처음 만났을 적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친하게 오래 지내온 우리건만,

졸업하고 나니 즐거웠던 한순간의 날들로만
기억하네.

하루 종일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가슴 한켠속에 평생 묻어두리

아, 이별이구나.



수련회

인성 키우기

초등 5, 6학년 담임 선생님께 친구 11명과 같이 카네이션을 사 들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요즘은 뭐하고 지내는지 안부도 여쭙어보고 옛날 이야기들을 나누며 선생님 덕분에 잘 자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선생님과 후배들을 위해 교실을 청소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활동을 실천하며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다는 행동만으로도 뿌듯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분들이 카네이션을 받으시고 환히 웃으시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좋은 활동이었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옛 친구들과 합심하여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도 정말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내가 남기는 독서 기록...

오페라의 유령(가스통 르루)

1. 작품의 주요 내용 : 무명인이었지만 합창단의 추천으로 여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라 환상적인 목소리로 관객들을 매료시킨 프리마돈나 "크리스틴"

그리고 귀족출신의 청년 "라울", 그리고 크리스틴을 짝 사랑했지만 흉측한 외모 때문에 가면을 쓰고 지하에 숨어살았던 "에릭"의 사랑이야기이다.

어느 날, 무대 리허설에서 연속해서 사고가 발생하자 여가수 칼롯타는 출연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로인해 합창단들의 추천으로 크리스틴이 여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게 된다. 크리스틴은 무대에 올라 환상적인 노래로 관객들을 감탄시켰고 그 관객중에는 크리스틴의 소꿉친구 라울도 있었다. 크리스틴의 무대에 감탄한 라울은 무대 뒤에서 크리스틴을 찾아가 축하해준다 그 후 오페라의 유령 에릭은 크리스틴을 주연으로 무대에 세울라는 편지를 극장주들에게 보내는데

극장주들은 편지를 무시하고 칼로타를 무대에 세우게 된다 극장주들이 에릭의 편지를 무시하자 화가 난 에릭은 공연 도중 무대 직원을 살해한다.

극장 직원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크리스틴은 공포에 떨며 옥상으로 도망가있었는데 옥상에 있던 라울이 크리스틴에게 고백을 하게 된다. 크리스틴은 자신이 에릭을 무시워하고 두려워하며 벗어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이 장면을 에릭이 목격하게 되며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2. 내가 선택한 인물 : 크리스틴

3. 그인물에게 건네는 말 : 천재적인 음악재능을 가진 에릭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도 공감이 되고, 에릭을 두려워 하는 마음도 이해가 된다 많이 무서울것같다

내가 쓴 똥은 내가 치운다.

발행 | 2024.10.16.

저자 | 구민준, 김대건, 김민수, 김민찬, 김용재, 김정옥, 김지호, 김한별,
김한수, 김호진, 박가운, 박석원, 박우찬, 박하늘, 박혜성, 신민서,
신재모, 심현옥, 윤성운, 이민석, 이하람, 전건형, 전준영, 추진권,
한규빈

펴낸이 | 강민정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